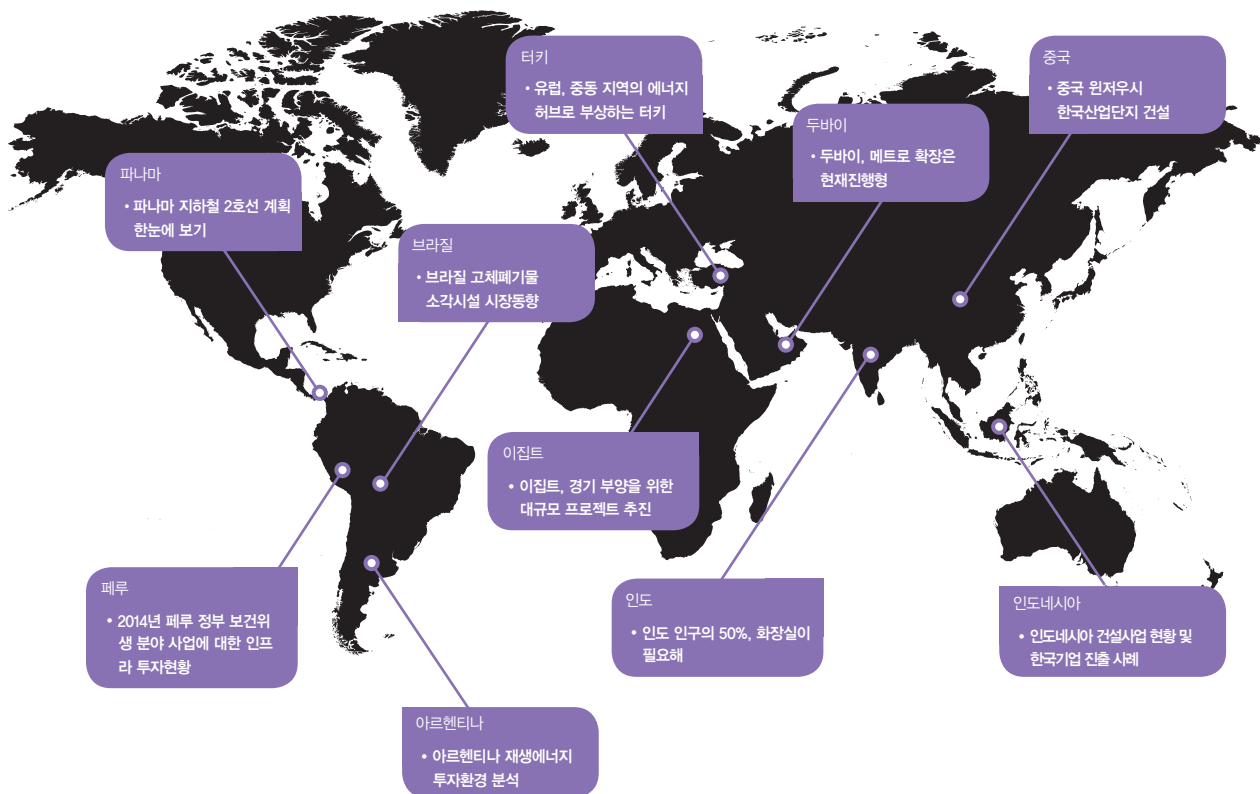


# 세계인프라 시장동향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본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해외시장포털정보사이트인 [globalwindow.org](http://globalwindow.org)의 최신 정보를 관련기관 협의아래 일부 발췌하여 정리



## 일반

### 이집트,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이집트 계획장관 아시라프 알 아라비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선망, 도로, 농업용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 수에즈운하 개발프로젝트, 사회보장 프로그램 구축이 포함된 경제 부양 정책이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대형 프로젝트의 하나인 골든 트라이앵글 개발 프로젝트는 퀴나(Qena), 사파가(Safaga), 알 카시르(Al-Qaseer)의 세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에 산업, 농업, 관광, 산업구역을 구축하는 지역개발 프로젝트이다. 현재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광석 개발 및 비료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리조트 개발프로젝트와 사파가(Safaga)-퀴나(Qena) 철도 프로젝트,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2차 수에즈운하 개발프로젝트는 35km구간의 신 운하 건설과 기존 수로의 확장 및 준설을 통한 운하화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배가 통과하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통과 물동량을 두 배 가까이 증가시켜 동아시아 국가 및 유럽, 미국 간 교역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670억 이집트 파운드의 투자비용은 전액 이집트 내 기업 및 개인 대상 채권으로 조달하며 프로젝트의 건설 및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협력 입찰자로는 이집트의 다르 알 한다사(Dar Al-Handasah)사가, 마스터플랜 평가에는 프랑스계 엔지니어링회사 이지스(Egis)가 선정되었다.

카이로 공항도시 프로젝트는 카이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890km<sup>2</sup> 구간에 관광, 산업, 호텔, 쇼핑센터, 교육시설을 구성하여 공항 도시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약 100억 이집트 파운드가 투자되어 205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완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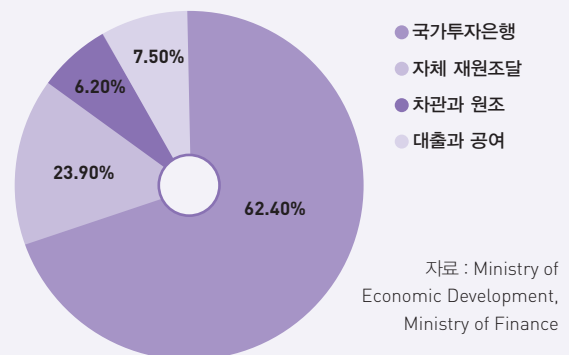
그 외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다미에타(Damietta), 이스트 포트사이드(East Port Said), 사파가(Safaga)지역에서 진행될 글로벌 물류센터 프로젝트와 북서해안 지역 16만 km<sup>2</sup> 지역에 관광, 농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북서해안 개발사업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카이로(Cairo)-식스 옥토버시(6 October City)간

### 이집트 인프라사업 자금조달 방식 및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이집트 재무부와 국제협력기획부 등에 따르면 이집트는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은 2012년 기준으로 정부 및 공공기업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에서의 조달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집트는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IFC 등) 및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투자은행(EIB : European Investment Bank), 이슬람개발은행(IDA : Islamic Development Bank), OPEC Fund 등 국제개발은행(MDB 또는 MLA) 및 국외 개발은행들의 차관 및 Soft Loan 등의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로컬 은행으로는 NBE(National Bank of Egypt), CIB(Commercial Int'l Bank) 및 Ahly United Bank 등을 중심으로 로컬 파이낸싱을 실시하고 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재원조달에 있어 국제개발은행의 차관 등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NBE와 Banque Misr 등을 중심으로 이집트 4개의 로컬 상업은행이 컨소시엄(Syndication)을 구성, 1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편당하는 등 로컬 파이낸싱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림1 이집트 5차 5개년 계획의 자금조달 구조



한편 2010년 5월 이집트 민간합동투자(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가 국회(People's Assembly)를 통과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자본과 경험, 기술력 등을 적극 활용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집트 PPP 시장은 외국계 기업에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이집트에서 최초로 시행된 PPP 프로젝트인 '뉴 카이로(New Cairo) 하수처리장(WWTP) 사업'에도 스페인계 수처리업체인 아쿠아리아(Aqualia)가 참여한 바 있다. 스페인 업체는 이집트 최대 건설회사인 OCI(Orascom Construction Industries)와 조인트 벤처를 구성, 오라스쿠아리아(Orasqualia)를 설립, 입찰에 참여하여 이집트 최초 PPP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집트 PPP 프로그램은 외국의 경험이 우수하고 자금력 동원이 가능한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에 문화를 개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GS건설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밖에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중국, 포르투갈 등 유럽 및 아시아 국가의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작성자 : 김현(카이로무역관)

2012-07-08

철도 프로젝트, 테크놀로지 빌리지(Technology Village) 프로젝트 등 아직 진행되지 않은 40여 개의 투자 프로젝트는 2015년 3월 13~15일까지 열릴 예정인 이집트 경제정상회담에서 100~120억 달러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원 : Daily News Egypt, Al Ahram 등 현지언론,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노정민(카이로무역관)

2014-12-26

## 인도네시아 건설사업 현황 및 한국 기업 진출 사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1년 5월 발표한 경제성장 촉진 마스터플랜(MP3EI)에 따라 2025년까지 총 4700억 달러의 예산 규모 가운데 48.3%를 인프라 개발에 배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인프라 중에서도 최근 수요가 증가한 주요 도시의 주택, 사무실 건설과 교통체증 해소 및 시내 연결 도로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및 철도 건설에 사업이 집중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사업에 국내외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에너지 관련 사업 발주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13번째 해외건설 수주국가인 한국은 과거부터 인도네시아의 잠재적 내수 수요와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주목해왔으며, 현재도 50여 개의 건설업체가 플랜트 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 공사, 토건 컨설팅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주요 완공된 공사로는 현대건설의 자고라위(Jagorawi) 고속도로(1973년), 팔렘방수반(Palembang Suban) 가스처리시설(2002년), 바탐(Batam) 공항 확장, 쌍용건설의 플라자 인도네시아 복합시설(Plaza Indonesia complex)(1997년, 2006년), 자카르타 증권거래소(1997년), 및 발리 인터콘티넨탈 호텔, 두산중공업의 서부자바주(Java) 짜레본(Cirebon) 700MW 화력발전소(2012년) 등이 있다. 현재 참여중인 공사에는 포스코건설의 찰레곤(Cilegon) 일관제철소 건설, GS건설의 찰라잡(Cilajap) 정유플랜트, 현대건설의 사룰라(Sarulla)지열 발전소, 도화 ENG.의 철도사업,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공항 PMC용역,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처리 FS 사업, 농어촌공사의 관개수로 개발 등이 있다.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체 조사 및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사례에 답이 있다" 종합  
작성자 : 염승만(자카르타무역관)

2014-12-19

## 도시계획/도시개발

### 중국 윈저우시 한국산업단지 건설

중국 윈저우시가 대외개방을 강화함에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발맞추어 한국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윈저우 한국산업단지는 어우장커우신취(甌江口新區)와 윈저우경제개발구의 주도로 '신기술을 선도하여 제 3산업과 사회공익 사업이 결합하는 현대화 산업단지'를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윈저우 이러웬 건립사업단과 (주)디올에이치앤비가 67억 위안을 투자한 최첨단 한류의료복합단지 이러웬 프로젝트와 어우장커우신취(甌江口新區)관리위원회와 한국의 L사가 60억 위안을 투자하여 1867km<sup>2</sup>에 공업원자재교역구, 물류구, 호텔구, 전람구, 아파트구를 짓는 화동국제공업원자재성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한국과 윈저우의 지리적, 문화적 흡사성을 기반으로 한 한국산업단지 건설은 한-중간의 전자, 자동차 산업의 상호 발전뿐 아니라 제조업의 원자재 및 제품의 전문 교역 중심지로서의 윈저우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2 화동국제공업원자재성(華東國際工業原料城) 개발 모형



자료원 : 世界浙商网, 搜狐焦点, 洞頭新聞网, 亞洲新聞  
작성자 : 리순화(항저우무역관)

2014-12-08

## 도시교통

### 두바이, 메트로 확장은 현재진행형

2009년 9월 운행을 시작한 두바이 메트로가 총 5억 명의 승객을 운송하며 지난 5년간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두바이 정부는 인구증가와 국제행사의 개최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의 증가로 교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총 420km의 트램과 메트로라인의 건설 및 운영을 계획하였다. 이에 앞서 2020년 개최될 두바이 엑스포를 위해 기존의 그린라인과 레드라인을 각각 20.6km, 18.5km씩 확장하고 블루라인과 퍼플라인의 신규 노선을 개설할 예정이다. 그린라인 확장공사는 2015년에 입찰을 시작하며, 이미 확장이 진행 중인 레드라인의 경우 2019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알막툼(Al Maktoum) 공항과 두바이 국제공항을 잇는 제 3,4 노선의 경우 구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곧 입찰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림3 두바이 메트로의 현재와 완공 시 모습



두바이 메트로에 대한 관심은 타 GCC국가의 메트로 운영으로 이어졌다. 아부다비의 경우 2009년에 발표된 교통 마스터플랜에 따라 2030년까지 메트로와 두 개의 경전철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Riyadh), 제다(Jeddah), 메카(Mecca)지역에 총 350억 달러 규모의 메트로와 경전철 프로젝트를 계획 중으로 6개 라인의 리야드(Riyadh) 메트로에 이미 모든 계약을 완료하여 2019년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타르 또한 모든 월드컵 경기장을 연결하는 234km의 도하 메트로를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이다. 반면 쿠웨이트는

쿠웨이트시티 내에 총 160km, 70억 달러 규모의 메트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으나 2013년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자료원 : Gulf News, Meed, RTA, Zawya 외 KOTRA 두바이무역관 자체 조사  
작성자 : 박미진(두바이무역관)

2014-12-21

### 파나마 지하철 2호선 계획 한눈에 보기

파나마 동부지역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기존의 지하철 1호선은 총 공사규모 20억 1,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총 길이 13.7km에 13개 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파나마 동부에서 중심지로 이동하는 하루 평균 13만 명을 수용하지 못해 많은 동부지역 거주자는 불법버스(Pirate Bus)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향후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될 경우 2035년 약 75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동부지역 거주자들이 출퇴근 시간 감소 등의 다양한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9월 15일, 입찰 절차가 시작된 지하철 2호선은 16개 역으로 구성되며 산미겔리토(San Miguelito) 시에서 누에보 토쿠멘(Nuevo Tocumen)까지 21km에 걸쳐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지하철역 근처에는 다른 대중교통으로의 환승의 용이를 위해 버스 및 택시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의 프레젠테이션은 지난해 12월 29일 이미 이루어졌으며 46개월간의 공사 후에 2019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비용은 90~100% 공급자 금융조달로 시작해 2015년부터 8년간 일정비율 금액의 균등상환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메트로 2호선 건설은 현재 진행 중인 도밍고 디아즈(Domingo Diaz) 대로 확장 공사에 영향을 미쳐 대로 확장 공사 비용증가와 공사 완료의 지연을 가져왔으나 향후 정부의 공사 계획에 따라 비용절감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 파나마 일간지(PanamaAmerica, LaEstrella), 파나마메트로청(SMP), 파나마 감사원  
작성자 : 황우현(파나마무역관)

2014-11-10

## 상하수도/ 위생

### 인도 인구의 50%, 화장실이 필요해

인도는 화장실 부족과 관리 및 유지 소홀 등 열악한 위생 인프라로 인해 환경 및 영양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모디 총리는 위생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클린 인디아(Swachh Bharat)’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2014년 10월 2일 발표하였다. ‘클린 인디아(Swachh Bharat)’ 프로젝트는 2019년 10월 2일까지 전체 인구가 기본적인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인도 전역의 농촌 지역에 화장실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기존 예산의 2배에 가까운 약 6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약 1,000만 개의 가정용 화장실과 약 25만 개의 공공화장실이 건설될 예정이다.

클린 인디아(Swachh Bharat) 프로젝트는 다양한 국영 기업 뿐 아니라 외국사기업의 투자로 진행된다. 인도 재무부 사무장인 산드후(G.S Sandhu)에 따르면 국립학교를 포함한 학교 화장실 건설에 인도 국영은행과 인도 국영 오일·가스 회사인 ONGC, 인디안 오일(Indian Oil), 콜인디아(Coal India Ltd), NTPC Ltd 등의 국영기업과 다국적 정보기술서비스기업인 TCS(Tata Consultancy Services)와 바르티 엔터프라이즈(Bharti Enterprises)같은 외국사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마하라슈트라주를 대상으로는 영국-네덜란드계 소비재기업 힌두스탄 유니레버(Hindustan Unilever)가, 마디아프라데시, 타밀나두, 우타르프라데시, 구자라트주를 대상으로는 아디티아 비를라(Aditya Birla)그룹의 위생시설 건설투자가 이루어진다. 농촌지역에는 영국의 금속, 광물기업 자회사인 힌두스탄 징크(Hindustan Zinc)와 인도 담배회사인 ITC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원 : 필리핀 경제잡지(BUSINESSWORLD), 인도 경제 일간지(MINT, ECONOMIC TIMES) 및 KOTRA 뭄바이무역관 보유 자료  
작성자 : 최유진(뭄바이무역관)

2014-12-01

### 2014년 페루 정부 보건위생 분야 사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현황

세계 환경 활동 보고서(EPI)에 따르면 환경 투자 분야 활동성에 대한 조사에서 페루가 288개국 중 110위, 17개의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17위를 차지하며 환경 투자 분야 활동성에 대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페루 환경부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국가 경제 활성화 및 페루 환경부(MIAP)에 의해 발표된 Decreto Supremo N°189-2012 법안을 기반으로 2021년까지 약 3만 2,986달러를 위생분야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 및 위생투자 인프라 사업은 보건부 산하 병원과 정부기관에서 발생하는 위험 오염물질 및 폐기물들을 처리, 보수하기 위한 민간 주도 사업이지만 페루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 인프라를 기준으로 공동 재원 조달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6년까지 이루어질 대표적인 인프라 사업에는 리마(Lima), 뻬우라(Piura), 람바예케(Rambayeque) 지역에 사회건강보험(ESSALUD)과 보건부(MINSA) 병원 시공설비 및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치끌라요(Chiclayo), 침보테(Chimbote), 도스 데 마요(Dos de mayo)지역 병원의 보수설비, 시설유지 관리 프로젝트, 푸노(Puno) 지역의 티티카카(Titicaca) 호수에 흘러 들어온 오염물질 및 폐수의 정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지역 건강 및 환경 보전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 페루 투자청(Proinversión), Gesion(일간지), 세계환경지수정보(EPI), 월드뱅크그룹(World bank group), 페루 환경부(MAP),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총합  
작성자 : 김정태(리마무역관)

2014-12-21

## 쓰레기

### 브라질 고체폐기물 소각시설 시장 동향

브라질은 2000년 이전 많은 비중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단순 매립하였으나 고체 폐기물 소각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단순매립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여 2008년 미처리 단순매립 고체폐기물의 비율을 50.8%까지 낮췄다. 또한 고체폐기물에 관한 정책법안(PNRS)을 새로 제정하여 2014년 9월까지 전국에 폐기물 단순 매립을 금지하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 정책에 따라 브라질 내 폐기물 소각 분야, 폐기물 에너지화 분야의 연구와 투자가 활성화되었으며 고체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수요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체폐기물 소각시설은 주, 시정부에서 효과적인 고체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기술 및 시설, 도입 방안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도 고체폐기물을 재생 에너지로 변환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대체한다는 목표아래 국내 외 사기업과 PPP사업을 통해 첨단 폐기물 처리 기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가스관과의 인접성, 교통, 기술적인 요소를 갖춘 곳에 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사회의 동의와 참여를 구하기 어려워 고체폐기물 소각시설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또한 폐기물 양에 비해 높은 비용과 고난도 기술력을 외국업체 기술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과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3가지 환경 라이선스 발급의 지연 또한 수요 감소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작성자 : 채송화(리우데자네이루무역관)

2014-10-14

## 환경/ 에너지

###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 투자환경 분석

2009년 5월 아르헨티나는 총 1015MW의 전력을 구매하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프로젝트(GENREN)을 발표하

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 온실가스의 감소, 에너지의 다양화를 꾀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12%만 실행되었고 2016년까지의 목표였던 재생 에너지 10% 달성은커녕 현재 총 에너지의 1%에 불과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바이오 연료의 발전을 위한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바이오 연료 시장에서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표적으로 바이오디젤은 아르헨티나가 세계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과 2016년 사이 소비가 63%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료 중 하나이다. 그 외에도 바이오매스와 바이오 가스의 대량 생산을 위해 아르헨티나에서는 쌀과 땅콩의 껍질, 동물의 배변 등의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아르헨티나 국립 농업 기술 연구소(INTA)는 자트로파(Jatropha)와 카멜리나(Camelina)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자료원 : Secretaría de Energía, Cámara Argentina de Energías Renovables, Asociación Argentina de Energía Eólica, Cluster Eólico, INTA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Agropecuaria), INTI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 Cámara Argentina de Biocombustibles, Asociación Argentina de Biocombustibles e Hidrógeno,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작성자 : 윤예찬(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2014-12-13

### 유럽, 중동 지역의 에너지 허브로 부상하는 터키

터키는 세계에서 에너지 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2023년까지 연간 약 7%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원유, 가스생산이 전무하여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아 러시아에서 전체의 60%의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터키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2005년 Renewable Energy Law(REL)을 제정하고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터키는 주요 에너지 공급국과 소비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소재하여 국제 에너지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터키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의 가스, 원유수송을 위한 건설에 참여하였

으며, 이스라엘 지중해 동부연안 천연가스의 유럽, 아시아 수송의 경유지가 될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의 경우 가스 수송용 South Stream 파이프라인을 터키를 관통하여 건설할 것이라 발표하였으며, 이라크는 터키를 통해 해외시장에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건설하였다.

이처럼 해외 기관의 관심과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가스 유통분야로의 터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1월 터키는 미국과 양국 간 청정 풍력에너지 관련 MOU를 체결하였고 미국과의 핵발전소 건설 개시 절차를 가속화하였다. 또한 러시아 로스아톰(Rosatom)을 2016년부터 건설함으로써 에너지 자원을 다양화 할 예정이다. 가스 유통분야에서는 지난 2013년 1월 앙카라 지역에 있는 가스그리드(Gas grid)를 낙찰한 것에 이어 2014년 11월에는 총 500만 가구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터키 내 최대의 가스 공급 네트워크인 이그다슈 가스 그리드 입찰을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 또한 글로벌 기술협력 및 국내 생산활동의 증가를 이점으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 주요 선진국 기업의 진출 동향 파악하여 터키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고 에너지 수송 파이프라인 건설에 자재 공급 등으로 참여를 시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터키투자청 ISPAT 홈페이지, 일간지, KOTRA 이스탄불무역관 의견 종합  
 작성자 : 권오룡(이스탄불 무역관)

2014-12-19